

내고장 농수산물로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전남 지자체들 추석 선물세트 마련 대대적 판매 마케팅
할인 판매·씨푸드 페스티벌·경품 등 풍성한 이벤트도

전남 자치단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수 특산물 홍보·판매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최대 명절을 맞아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지역 관공서, 기업체 등 100여 곳을 돌며 '내고장 농수특산물 애용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해남 특산물들로 구성된 고객 맞춤형 선물세트를 마련, 군 지역 온라인 소포몰인 '해남미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판매 마케팅에 돌입했다.

선물세트는 특산물인 함초소금, 돌김, 조청을 비롯, 쌀과 잡곡, 고구마 등 제철 농산물 등이 소포장 단위로 구성됐다.

군은 또 130여종의 해남 농수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추석맞이 이벤트도 진행하는 한편, 대도시 유통센터와 협의, 직판행사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완도군은 다음달 말까지 씨푸드가 운영하는 서울·경기 음식점에서 완도산 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완도 씨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열며 완도산 수산물 홍보에 적극적이다. 완도산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

일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둔 선물용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완도군은 또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을 이용한 '10-10-10 특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완도군을 찾은 관광객이 모바일 스탬프 10개 이상을 획득하면 완도 웰빙 특산물인 큰전복 10미를 상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앱을 설치하고 인증지역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전자 도장이 찍힌다.

완도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으로 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물 쇼핑 등 다양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을 유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계획이다.

보성군은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보성물'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1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해주는 등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성군은 특히 3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38개 품목을 우수 농·특산물로 추려내고 리플렛 3000장에 담아 전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상태다.

보성물에는 10년 연속 브랜드살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 친환경 배, 녹차 등 60여개 업체가 생산하는 420여 품목의 상품이 등록됐다.

함평군도 '내고장 물건 사주기' 추진계획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함평군은 '함평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에서 추석 선물 구입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 함평·해보·나산·월야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 명절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박희석기자 dia@ /보성=김용백기자 kyb@ /함평=황윤학기자 hwang@

해남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명품 특산물로 구성된 '맞춤형 선물세트' <위>와 완도산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



K-water 진도수도관리단 의료봉사활동

K-water 진도수도관리단은 최근 (사) 열린사회 등과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다. <사진> 이번 의료봉사는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부녀자,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현실을 감안, 이동진료실을 운영하는 한편, 내과, 외과, 치과, 정형외과에 물리치료, 한방, 골밀도검사 등도 실시했다.

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spark@

완도군 청해진 골드 황칠과 30억 투자협약

완도읍 농공단지 공장 설립, 황칠축은 현재 미국, 베트남 지역에 황칠비누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이 완도 황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청해진 골드 황칠과 완도읍 농공단지 일대에 30억 규모의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황칠축은 연간 500t에 이르는 황칠 원료를 완도에서 구

'완도비파 피지오 음료' 개발하고 청산도 해녀 커뮤니티 조성

완도군 신규시책 보고회

584건 제안 49건 추진 결정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완도산(産) 비파로 만든 '완도비파 피지오' 음료를 개발, 전국 매장에 출시토록 하는가 하면, 청산도에 해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완도군의 '2018 신규시책 보고회'는 특



특 특 튀는 정책 사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사진> 보고회에는 584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116건을 우선 추려냈고 최종 검토를 거친 58건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 49건의 사업을 추진기로 잠정 결정했다.

결정된 사업으로는 ▲완도비파 피지오 음료 개발 ▲청산도 해녀 커뮤니티 조성 ▲완도의 알프스 흑염소마을 조성 ▲가고 싶은섬 여행, 자전거로 즐겨요 등이 관심

을 모은다.

“...피지오” 음료 개발의 경우 문경 오미지 피지오, 광양 황매실 피지오 사례와 같이 완도 비파로 만든 피지오 음료를 개발, 판매해자는 것으로, 사업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청산도 해녀커뮤니티의 경우 한때 350여명의 해녀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나잡업(물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수산물을 생산한 청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난 2008년 슬로우시티 지정 때 해녀들의 역할이 매우 컸고 지금도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점, 청산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녀들의 물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완도군 판단이다.

대만의 고양이 마을의 사례처럼 약산면의 명물인 흑염소를 활용, 방목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체험 시설을 마련해 보자는 사업계획도 내년 사업에 반영됐다.

청산도와 생일도를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이용 서비스도 추진된다. 자전거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몰고오는 차량 증가로 섬 주민들 탑승이 늦춰지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규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롯데슈퍼와 농산물 판매 협약

해남군이 롯데슈퍼와 업무협약(사

진)을 체결,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롯데쇼핑(주)슈퍼사업본부와 협약을 갖고 해남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마케팅과 농가의 지도·관리 강화에도 힘써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은 또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을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나주, ㅅ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010-3605-5000